

사설

주요 종단 복지사업 기대 크다

조계종 전태종 진각종 등 우리나라 불교를 대표할만한 종단들이 밝힌 올해 사회복지사업 계획은 규모에 있어서나 실현성에서 주목받을 만하다. 조계종은 사회복지재단이 중심이 되어 '불교자원봉사 새물결 운동'을 벌인다. 3월부터 제주도에서 시작해 전국 주요도시에서 자원봉사자 대회를 갖는다고 한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서는 자원봉사 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홍보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천태종은 홀로 사는 노인의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부산 삼광사를 비롯한 주요 사찰에서 '1사찰 1그림'을 만들어 사찰 인근의 노인들이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진각종은 2002년 불교종합복지타운을 완공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올해 그 사업을 시작한다. 혼자 힘으로는 살아가기 어려운 노인 어린이 여성 장애인 실직자, 이런 이웃들의 보금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일제강점기 자원봉사의 활성화와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제기돼 왔다. 불교의 자원

봉사는 그동안 다른 종교·사회단체에 비교해 활발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자원봉사자를 찾아내고 분류하고 관리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 전국의 독거노인 인구는 19만명에 이른다. 우리 사회가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이다. 남의 보살핌 없이 육신을 지탱하기 힘든 이웃들의 숫자까지 합치면 얼마나 될까.

주요 종단들의 복지사업 청사진을 대하며, 유마 거사의 유명해 가르침이 떠오른다. "보살도 이와 같이 모든 중생을 아물처럼 여기므로 중생들이 병을 앓으면 보살도 병이 나고 중생의 병이 쾌유되면 보살의 병도 쾌유되는 것입니다." 대승보살상의 전형인 유마 거사의 가르침이 활짝 피어나는 것 같아 반갑기 그지없다. 그러나 각 종단의 계획은 천리길의 도정에서 첫 발을 디딘 것에 불과하다. 더욱 많은 신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하고, 계획이 중도에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그쳐야 한다.

보존 우선의 문화재정책 펴라

'공든 탑이 무너지랴'는 믿음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폐기되어야 할 것 같다. 최근 붕괴 위기에 놓인 갑은사터 탐보굴 그것을 말해준다.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국보 제112호로 지정된 갑은사터 동서 쌍탑은 2차에 걸쳐서 해체 보수된 바 있는데, 서탑은 1959년 그리고 동탑은 1996년에 각각 보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동탑의 보수 과정을 보면, 그 허술함의 정도가 놀라움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게 하기에 충분하다. 해체 후 복원 과정에서, 정교하게 배치된 기단 내부의 장식 구조를 무시하고 그야말로 아무 돌이나 잡히는 대로 쓸어넣는 것이 되며, 수축을 한 것이다. 석탑의 하중을 고르게 분산시키지 못하면 당연히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는 극히 초보적인 상식을 무시했다는 얘기다.

위기에 처한 문화재가 이것만이 아니다. 경북 안동 신세동 7층전탑(국보 제16호)은 3m 남짓 떨어진 철길 옆에서 하루 수십 차례의 열차 진동에 신음하고 있고, 여주 신륵사 다층전탑(보물 제226호)도 기단부와 탑신부의

아귀가 맞지 않아 벌어진 틈새에 돌맹이와 풀이 자리잡고 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나 보령 성주사터 삼층석탑(보물 제20호)과 같은 경우는 보수 시 잘못된 부재 사용의 해악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최근 들어 호들갑스러울 정도로 고조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한 관심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 가운데 하나인 '거품 현상'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게 한다. 더욱이 현정부 문화정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문화재의 관광자원화'고 보면, 관광지화가 어려운 절터나 학술적 가치는 뛰어나지만 볼거리로서 세인들의 눈길을 끌지 못하는 문화재는 사장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닿는다.

문화재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무조건 나무랄 수는 없다. 하지만 문화재의 가치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지만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에 종속된 게 아니다. 백보를 양보하여, 관광자원화를 위해서도 그렇다. 왜곡되거나 손상되지 않은 모습으로 보존하는 것이야말로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길이다.

“주지 고과 도입 바람직”

포교·사찰운영 평가 따라 책임여부 판단

조계종포교원 보고서

지역포교 활성화를 위해 고과제도의 실시 등 주지 인사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실장 명조)이 14일 배포한 <지역포교 리포트>에 따르면, “주지 스님이 바뀔 때마다 종무의 기조가 달라지면서 사찰의 운영방식이 크게 변화되고, 이로 인해 모든 사업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된다는 폐단이 있다”고 지적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주지 스님이 재임을 원할 경우 곧 재임을 실시하고, 평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주지를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지역포교 리포트>는 포교연구실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10개 시·군·구 지역의 19개 사찰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포교 활성화 방안 연구조사 보고서로, ‘지역포교 방법론’과 19개 사찰의 현황과 지역 특성에 맞는 포교 활동 사례를 모았다.

이 책자에서 포교연구실은 주지 인사제도와 관련, 주지스님의 변동이 해당 지역사찰에 미치는 영향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공할 주지스님의 임기와 인사의 평가 기준, 사찰의 운영과 포교 성과에 대한 고과 기준이 마련되어 투명한 평가 속에 주지 인사가 이루어져

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실은 또 △주지 인수인계시 지역 정서와 주민 현황, 신도 의식에 대한 정보 교류를 위한 인수인계 절차의 보완 △사찰 재정정의 지역사회 회향 정도를 감사 내용에 추가 △종무원 교육과정을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실은 지역포교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지스님과 소임을 맡은 스님들의 지역포교에 대한 원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와 함께 지역 특성과 정서의 파악, 신도교육을 통한 보조 전문 인력의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opia.com)

태고종 내분 심화

중앙총회 13일 새 총무원장 법장스님 선출

총무원 “총회무효 가져분신청...관련자 징계”

태고종 내분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태고종 중앙총회(총회회장 남파)는 13일 순천시내 로얄호텔에서 총 49명중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0회 임시총회를 열고 새 총무원장에 현 중앙총회 부의장인 법장스님(수원 대련사 주지)을, 부원장에는 지해스님(선암사 주지)과 대운스님(중앙총회 부의장)을 선출했다. 이날 총회는 지난해 11월 23일 선암사에서 열린 제79회 총회에서의 제19대 총무원장 선

거와 송종연 총무원장 당선의 원천무효화를 선언했다.

이에 대해 종연 총무원장은 14일 각급 기관장 연석회의를 열고 순천에서 열린 임시총회가 원천무효임을 강조하고, 관련자 문책, 법원에 중회무효확인 가져분신청 등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종연스님은 당일 오전 성북동 총무원청사에서 따로 기자회견을 열고 종단화합을 위해 대화창구는 계속 열어놓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3면>

이경숙 기자

국가공무원청 설립 추진

제도개선위 7~8일 워크숍

조계종,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 16개 환경·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립공원제도개선시민위원회(국립공원시민위, 공동대표 원택스님)는 7~8일 워크숍을 갖고, 국립공원특별법 및 국가공무원청 설립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국립공원시민위는 15일 환경부의 ‘국립공원구역조정안’에 대해 “공원구역 조정의 지역에서의 개발 압력이 우려된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opia.com)

인사부 총지종새 총리원장 해임 종사

“복지센터 세우고 인터넷 포교”

“오락약세의 혼미속에 해매이는 중생들에게 밀교진언의 묘리를 깨닫게 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발전하는 총지종으로 거듭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15일 총본산 총지사에서 총지종 제12대 총리원장에 취임한 해암총사(66)는 “종단체제를 개편하고 회합으로 종단운영과 대중교화에 진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해암 총리원장은 책임중 꼭 해야 할 일로 스승들의 법의의 위의를 갖추고 불단장엄 문제 등 종단 내부 구성원의 의사를 수렴하여 중생교화에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신도들의 노후복지를 위한 시설



건립과 청소년수련관 운영 등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아우르는 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 단위의 세분화된 포교모임과 신도회 조직을 활성화시켜 종단의 역량을 축적하고 인터넷 포교, 영상포교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총지종 용어해설사전, 불교총전, 종조법설집 등을 간행, 밀교의계와 밀교경전의 복원과 역경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경숙 기자

봉선사 새 주지 일면스님

선각·원타스님 당선

봉선사는 12일 산중총회를 열어 재직 선거인 72명 가운데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일면스님을 새 주지로 뽑았다. 임기는 3월 19일부터 4년 동안이다. 일면스님은 당선 직후 “봉선사를 교육과 역경을 잘 하는 도량, 가장 모범적인 본사로 가꿔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47년 경북 경주에서 출생한 일면스님은 59년 해인사에서 명허스님을 은사로 득도, 10, 11대 중앙총회의원 11대 때는 수석부의장으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조계종 교육원장, 광동화원 이사장 등의 소임을 맡고 있다. 정성운 기자

조계종 총회의원 보선

13일 실시한 해인사 총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선각스님(사진 왼쪽)이 당선됐다. 선각스님은 해인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94년 범어사에서 일타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한편 직능대표선출을 위한 14일 회의를 열어 원타스님(사진 오른쪽)을 선관대표로 보궐선출했다. 선철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원타스님은 75년 해인사 안거 이래 15하안거를 성단했다. 정성운 기자



“우리나라 종교단체 부패” 52% 기업인 설문

종교단체는 어느 정도로 부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교단체의 부패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이 같은 질문에 우리나라 기업인들의 51.8%가 그렇다고 답했다. 행정자치부(56.4%)나 재정경제부(53.7%)보다는 낮았으나, 청와대(45.3%) 한국은행(44.5%)보다 높았다.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부패하다(35.1%)보다 부패하지 않다(37.9%)는 응답이 약간 많았다.

서울시립대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소장 강철규 선임연구원 조은경 박사가 지난 해 12월 우리나라 기업인(사장과 임원, 일반직원) 1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가운데 기관별 부패 인지도를 묻는 설문 문항의 결과다. 조 박사는 최근 ‘새

무역장벽-기업의 부패라운드 대처 방안’이란 논문을 통해 이 같은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부패와 싸우기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하는 기관으로는 국회(35.2%), 시민단체(23.1%), 검찰(14.8%)을 꼽았다. 종교단체에 기대한다고 응답한 기업인은 없었다.

기업인들 대상의 조사여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종교단체를 보는 눈이 굵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 박사는 이 논문에서 “기업인들이 종교단체에 대해서도 부패하다고 응답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부패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성운 기자

제3회 미륵사상 정립 학술대회

서산에 해가 기울고 동방의 해가 떠오르니, 세상은 바야흐로 서양의 물질문명에서 동양의 정신세계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미륵사상 연구협의회에서는 지난 오천년 동안 민족정신의 뿌리가 되어온 심천불이(心天不二)의 미륵사상을 연구하고 바르게 정립함으로써, 민족의 정체성을 밝히고 인지본(人之本)의 충효성정으로 자주성을 확립하며, 한민족의 51세기를 창조하는 바탕을 준비하여 이 땅에 도덕복지국가를 이루고 나아가 세계일가의 종주국으로 발돋움하는 동시에, 미륵사상 정립을

시작하는 차원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민족의 뜻을 하나로 화합하고 민족의 역사를 새로이 시작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오니, 민족의 앞날을 생각하는 뜻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미륵대도 인본훈(人本訓) ◆

나라에 忠誠함은 國民의 道理이고,  
父母에 孝道함은 子息의 道理이며,  
聖賢에 誠敬함은 人間의 道理이니라.

발표논문주제

- 기조발표-한민족과 미륵사상 ..... 노길명(고려대 인문대학장)
- 한국미륵신앙의 현황과 그 성격 ..... 이경우(한국새종교연구원장)
- 미륵대도와 미륵사상 ..... 강돈구(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미륵사상과 화해정신 ..... 신광철(한신대 종교문화학과)
- 청정국토의 건설과 미륵사상 ..... 윤승용(한신대 종교문화학과)
- 51세기의 새로운 기성종교 ..... 신수현(미륵사상연구협의회연구위원)

행사안내

- 일시 : 2001년 2월 27일 오후 1시~6시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서울 태평로 소재)
- 주최 : (사)미륵사상연구협의회
- 주관 : 미륵대도 금강연화종
- 후원 : 문화관광부, (재)대도문화재단, 海印大道
- 연락처 : (사)미륵사상연구협의회 사무국(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산84-3)  
TEL:(032)831-6803, FAX:(032)831-8967  
E-mail:miruckidea@hanmail.net